

'96 통상산업부 주요 업무계획

1. 통상산업정책의 여건과 방향

1)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는 개도국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신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WTO체제의 정착, APEC 역내 무역자유화의 추진 등으로 세계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국가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OECD 가입 추진과 함께 금융·외환시장의 자유화와 유통부문의 개방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

편집자 주) 96년 통상산업부는 능동적인 통상활동의 전개와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 민관협력의 산업발전 체제 정착이라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본고는 이에 동업무 계획의 주요 부분을 발췌 정리·개제한 것이다.

외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과 「엔」고 효과의 감소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로 95년 보다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 예상되며, 개방과 경쟁의 확대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유통부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에너지시장은 전반적인 수급안정이 예상되나, 국내적으로는 전력·LNG 등 고급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2) 정책방향

① 능동적인 통상활동의 전개와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

WTO, APEC 등 국제 경제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교

역 상대국별 특성에 맞는 통상·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수출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술과 문화가 체화된 상품위주 수출구조를 고도화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해 나아가고 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다.

② 민관협력의 산업발전체제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의하는 산업발전체제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자금·입지·물류 등 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인력·정보 및 연구시설 등 기술하부구조를 확충해 나아갈 것이며 환경친화적이며 지역균형적인 산업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기반 확립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등 기

존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음보험제도, 기술담보제도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경영애로상담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 96년 주요업무계획

1) 능동적인 통상활동의 전개와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

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능동적 대응

WTO체제에의 적극 대응을 위해 WTO 협정관련 국내 제도정비 및 타국의 이행상황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보조금, 지적재산권 등 국내 산업·무역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각국의 무역정책 및 반덤핑, 기술장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WTO의 감시활동에 적극 참가할 계획이다.

UR 후속협상에서의 실리 확보를 위해서는 우회덤핑방지규정, 원산지규정 및 서비스분야의 세이프가드 규범 제정 등 후속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1차 WTO 각료회의(96.12, 싱가포르), 사전 통상장관회의(96.4) 등 다자체제 협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다.

환경, 노동기준, 경쟁정책,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WTO 및

OECD 등에서의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여 연구소·학계·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대책반」을 활용,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다.

지역협정 및 OECD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강화를 위해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APEC 무역·투자자유화 이행계획 작성에 있어 최대한 실리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간사역을 맡고 있는 무역진흥분야 외에도 인력자원, 산업과학 등 협력사업을 주도하여 APEC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96년말 목표료 추진중인 OECD 加入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나. 주요 교역상대국과 미래지향적 통상협력 추진

권역별 시장개척 활동의 적극 추진을 위해 주요 시장의 효과적 관리와 새로운 시장에의 체계적 진출을 위해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성장잠재력, 시장규모, 진출의 용이성, 주변지역에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해외투자 및 연불수출자금 등 금융지원과 상무관·KOTRA 무역관 등 통상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종래의 단기적 통상현안 해

결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교역상대국별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다각적 통상활동을 통한 원만한 통상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담 등 정부차원의 각종 통상활동을 통해 통상현안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해 나아가는 한편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업종별 협의체」 등 민간차원의 대화노력을 강화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해 나아갈 것이다.

다. 무역의 확대균형 추구와 선진형 무역제도의 확립

효과적인 무역수지 개선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 기본재산권의 육성지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노력을 강화하고 수출보험의 해외시장개척 지원기능을 강화해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시장개척기금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및 유망상품 일류화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다.

무역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무역업계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이며 수입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기술보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와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투자기능이 보강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산업피해구제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무역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해 나아갈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수입급증 품목의 수입동향 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2) 민관협력의 산업발전체제 정착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가.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정부 역할의 재정립

경쟁촉진 및 규제개혁을 위해 진입규제의 철폐 등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업활동규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는 발전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이 세계일류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업종전문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균형적 산업정책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나.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 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기반의 강화를 위해 자본재산권 육성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시제품 개발자금을 확대하고(95년 : 1,200억원→96년 : 2,000억원), 자본재 품질인증사업 및 우수품질마크 획득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지원하고 국산기계 구입시에도 외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계류 전문할부금융회사를 통해 국산기계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플랜트 업체의 기술배양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산업정보전산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를 위한 생산조달운영종합정보체계(CALS System)의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자본재·정보·색채 등 3개 분야의 표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첨단산업의 경쟁력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수도권내 공업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입지여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공장 및 공단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아갈 것이다.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지원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다.

산업기술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96~2000)에 따른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철지·한지 등 전통고유기술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단계별로 산업기술자금을 연계지원하여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켜 나아갈 것이다.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96~2000)에 따른 확산형 산업기술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기술대학의 건립에 착수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주문형반도체 설계인력 등의 양성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기술개발 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담보제도 및 기술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방산업기술진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산업기술혁신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국제기술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유통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물류애로 요인의 지속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수요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후생 증진노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3) 전자산업 업무계획

가. 산업정보화의 추진

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산업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업종별 EDI를 추진할 것이다.

유관기관·단체간의 E-MAIL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10여개의 산하단체와 통산부간에 Network을 구성하여 E-MAIL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뢰성 확보, 다수의 동시 사용자 확보, 다량의 데이터량 처리를 위한 대용량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타 초고속정보통신망과의 연계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CALS 체계 구축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CALS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CALS 체계 도입의 확산과 기술개발 증대를 위한 CALS 협회 및 관련 연구조합을 96년 2월까지 설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CALS 체계의 업종별 모델링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과 CALS 국제전시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산업계의 CALS 마인드 제고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 멀티미디어 기술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기술개발사업」의 착실한 수행으로 기반기술 확보('94~'97)하고 멀티미디어 종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3차년도, 사업비 20억원)과 휴대용 정보단말기 개발(2차년도, 사업비

35억원)를 추진할 것이다.

국내 멀티미디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제도를 유관부처 공동주최 및 시상범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G7 사업으로 선정된 「HDTV용 ASIC 개발사업」('95~'99, 사업비 1,024억원)을 통해 미국의 GA규격과 한국규격을 만족하는 ASIC의 개발을 1차년도 사업비 82억원(정부 41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한·중 HDTV 공동개발사업을 위해 96.1월 서울에서 양국 전담기구간 세미나를 개최하여 1단계 사업내용 및 공동연구개발기구 설치문제를 협의하고 96년 하반기 서울에서 제3차 한·중 HDTV 산업협력분과위원회 개최시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G7 사업으로 선정된('95~2001, 사업비 1,820억원)으로 29" 대화면·저전력 TFT-LCD와 55" PDP를 개발할 계획이다.

1차년도 사업비는 76억원(정부 33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중기거점사업인 「LCD기반기술개발사업」('93~'98, 사업비 62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하나로 「첨단 전자영상 S/W 설계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한·일 산업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첨단 영상전문학교에 전자 게임인력 기술연수를 파견할 계획이다.

다. 반도체 산업의 균형발전

G7사업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93~'97, 사업비 1,954억원)을 통해 1G DRAM 생산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기확보한 1G DRAM 설계 및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일본보다 앞선 상용시제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3차년도 사업비는 526억원(정부 28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3사의 16/64M DRAM 생산공장 신증설 투자 동향을 점검하여 투자애로의 해결을 지원하고 특히, 반도체 업계의 메모리부문 해외직접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lectro-21 사업('92~'97, 사업비 635억원)을 통해 추진중인 펜티엄급 마이크로프로세서, 화합물 반도체, 전력용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신규 G7사업으로 추진할 「주문형반도체개발사업」('95~'99, 사업비 1,024억원)의 일환으로 ASIC 기반기술 개발 사업추진할 것이다. 1차년도 사업비는 14.7억원(전액 정부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재료 국산공급비중 확대를 위해 국내기반기술이 취약한 핵심장비 및 재료 기술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3차년도 사업비로 98억원(정부 40억원)을 6개 장비 및 3개 재료기술 개발에 투입할 것이다.

중기저점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도체장비개발사업」(’95~’99, 사업비 500억원)을 통해 단기간 국산화가 가능한 33개 핵심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의 본격 개발에 착수하고 자본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품목으로 향후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반도체 사진식각기, 개스공급장치 등 2개 핵심장비의 국산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의 첨단 반도체 장비업체의 투자를 적극유치하고 반

도체장비와 장비부품간 관세율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하나로 반도체 설계인력양성사업(95~99, 사업비 300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반도체 산업 종합입지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반도체산업 기술발전 비전(Road map)을 제시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라. 일반전자부품 재료산업 육성

전자재료 기술개발사업(중기저점사업, ’96~’99, 사업비 105억원) 및 Electro-21사업(’92~’99, 사업비 635억원), 자본재산업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전자부품 재료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자부품 재료설계 인력양성 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하여 설계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또한 한·일 모델 중소기업간 협력지원(한·일부품산업협력사업)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용어해설

트랜잭션

트랜잭션(transaction)이란 컴퓨터 단말의 사용자가 중앙처리시스템에 요구하는 일(작업)의 단위로서 한번의 인터랙션(interaction)을 나타내는 말이다.

트랜잭션의 본래 의미는 「처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시스템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며,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처리(update)하는 데 기본이 되는 하나의 입력메시지를 뜻하기도 한다.

온라인시스템이나 시분할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의 단말로 거래나 조회

를 중앙처리시스템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데이터 파일 등의 마스터파일에 변경·추가·삭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의 사용자가 입력되는 작업으로서 입출하·매상액·지출액·반품·손실·정정 등 일시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마스터파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입력파일로서 어떤 事象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인 데이터를 기록하는 파일을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하는데, 일명 발생파일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급여계산업무 등에서는

급여대장에 해당하는 급여마스터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변동데이터, 즉 각 사원의 급여변동내용을 계산해 급여명세를 작성하는 것 등이다.

단말장치와 컴퓨터시스템의 통신회선으로 결합해 처리하는 데이터의 集配信 처리, 메시지교환처리, 조회응답처리 등과 함께 트랜잭션 처리도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오더 엔트리(order entry)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트랜잭션 서비스로 예약주문처리 등을 하는 흡소공과 흡병기를 비롯해 호텔·극장·열차·항공기 등의 예약주문처리에 활용된다.